

朝鮮刊本『樊川文集夾註』 인용서적의 문헌가치에 관한 再論*

金 鎬**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輯佚과 校勘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 1) 輯佚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 2) 校勘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3.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朝鮮刊本『樊川文集夾註』(이하에서는 『夾註』라고 약칭한다)는 晚唐의 著名한 시인 杜牧(803-852)의 시에 註를 단 古서로 現존 二목 詩集의 註釋本중 印出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다. 즉 杜牧의 詩集에 註를 단 古書로는 (淸)馮集梧의 『樊川詩集注』(1798년 간행)가 대표적인데 刊行年度로 볼 때 『夾註』는 朝鮮太宗十六年(1416)에 간행된 忠淸公州版本이 확인되는 까닭으로 『樊川詩集注』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간행된 주석서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樊川詩集注』가 『樊川外集』에는 주를 달고 있지 않은 반면, 『夾註』는 『樊川外集』에도 註를 달고 있다. 또한 註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내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9-332-A00153).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용이 馮集梧의 『樊川詩集註』보다 더욱 상세하고 타당한 면이 적지 않다. 동시에 註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적이운데 상당수가 현재 중국에서도 이미 찾아 볼 수 없는 귀중한 서적이라는 점에서도 높은 문헌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바로 이점 때문에 『夾註』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夾註』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적의 문헌가치를 밝히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선행 연구들이 소수의 인용 서적 예를 들어 『十道志』, 『玄宗遺錄』 등 비교적 문헌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夾註』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적의 문헌가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¹⁾ 동시에 『夾註』의 협주자가 고려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夾註』에 인용되고 있는 중국 서적들이 『夾註』가 편찬될 당시 고려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관점에서 문헌 가치를 검토하는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²⁾

본문은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輯佚과 校勘의 관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문헌들 예를 들어 『十道志』, 『玄宗遺錄』이외에 『夾註』에서 인용된 기타 서적의 문헌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夾註』에 인용된 중국 서적들의 문헌가치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夾註』에서 인용된 중국 서적들이 『夾註』의 편찬 당시 고려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의 학술사적 의미를 추론하고자 한다. 본문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선간본 『夾註』가 갖는 문헌가치를 선행 연구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이 방면의 예로는 吳在慶, 「朝鮮刻本 『樊川文集夾註』의 文獻價値-從一條稀見的楊貴妃資料談起-」, 『中國典籍與文化』 2001年第1期(36期), 65~70쪽; 郝艷華, 「朝鮮刻本 『樊川文集夾註』中所輯 『十道志』佚文」, 『文獻』, 2004年1月第1期, 108~117쪽; 楊焄, 「論朝鮮刻本 『樊川文集夾註』의 文獻價値」,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4年第3期, 135~139쪽 등을 들 수 있다.
- 2) 『夾註』의 협주자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와 관련된 설명은 본 논문 3장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소략한다.

2. 輯佚과 校勘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1) 輯佚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輯佚의 관점에서 볼 때 『夾註』에서 인용되고 있는 중국 서적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十道志』, 『春秋後語』, 『盾甲開山圖』, 『五經通義』, 『三輔決錄』, 『魏略』, 『晉陽秋』 등은 일부는 이미 失傳되었거나 혹은 비록 청대의 輯佚本이 존재하지만, 原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즉 『夾註』는 편찬, 간행된 이후로 중국에서 그 전래가 희귀하여서 淸人이 고적에 대한 輯佚 작업을 할 때에도 이용되지 않아, 현재에도 관련 古書의 輯佚 작업에 있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夾註』에서 인용되고 있는 중국서적이 집일의 관점에서 갖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夾註』에서 인용되는 고서가운데 일부는 현재 失傳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이 방면의 예로는 먼저 『夾註』 卷四의 「和野人殷潛之題籌筆驛十四韻」詩에 인용된 『金海算法』: 「十忽爲絲, 十絲爲毫, 十毫爲釐, 十釐爲分, 十分爲寸」³⁾을 들 수 있다. 이 서적은 현재 「古籍影像檢索系統」(臺灣 國家圖書館善本 國家圖書館普線, 그리고 美國國會圖書館, 美國華盛頓大學圖書館, 美國柏克萊加州大學東亞圖書館등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 고서를 범위로 한 데이터베이스)과 「中文古籍書目資料庫」(중국 국가도서관 고서서목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현존 중국고서 검색시스템과 『中國叢書綜錄』⁴⁾, 『古佚書輯本目錄』⁵⁾ 등 총서에 수록되어 있는 서적 혹은 집일본의 존재를 검색할 수 있는 관련 목록서에서도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卷二의 「送國碁王逢」詩

3) 『樊川文集夾註』, 『續修四庫全書·集部·別集類』第1312冊, 卷四, 「和野人殷潛之題籌筆驛十四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95下쪽.

4) 上海圖書館編, 『中國叢書綜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5) 孫啓治, 陳建華 編, 『古佚書輯本目錄』, 北京, 中華書局, 1997.

의 第一句「玉子紋楸一路饒」 밑의 협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御前碁譜』⁶⁾도 중국 역대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서적이다.

그 다음으로 『夾註』에 인용되고 있는 중국서적 가운데 輯佚本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夾註』중에 인용된 것과 輯佚本의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十道志』가 대표적인 예이다. 『十道志』는 (唐)梁載言이 지은 唐代 地理總志이다. 『夾註』에는 모두 60餘條 정도가 인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현존하는 王謨의 『漢唐地理書鈔·十道志』와 王仁俊의 『經籍佚文·十道志佚文』에도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다.⁷⁾

그러나 『十道志』이외에도 『夾註』에 인용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실전되어 현재는 輯佚本의 형태로만 남아있거나 類書에만 수록되어 있는 서적 역시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는 『三齋略記』, 『三輔決錄』, 『唐宋詩話』, 『譚賓錄』, 『隨唐嘉話』, 『三國典略』, 『青箱雜記』, 『職林』, 『茶譜』, 『(孫盛)晉陽秋』, 『樂府雜錄』, 『荊楚歲時記』, 『天寶遺事』, 『明皇雜錄』, 『十州記』, 『鷄跖集』, 『遁甲開山圖』, 『五經通義』, 『韻語陽秋』, 『羯鼓錄』, 『遜齋閒覽』, 『漢武內傳』, 『三輔皇圖』, 『楊妃外傳』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夾註』에 인용된 서적들의 문헌가치가 기본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夾註』에 인용된 서적의 내용 가운데 현존하는 類書 혹은 輯佚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종종 발견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예는 『唐宋詩話』이다. 이 서적은 『唐宋名賢詩話』 혹은

6) 협주의 내용은 「饒一路, 勝一路」이다. 『樊川文集夾註』, 卷二, 51上쪽.

7) 郝艷華, 「朝鮮刻本『樊川文集夾註』中所輯『十道志』佚文」은 「예를 들어 唐代 梁載言이 지은 唐代地理總志인 『十道志』는 『夾註』에서 58條 정도가 인용되고 있는데, 이 58條는 현재 王謨의 『漢唐地理書鈔·十道志』 및 王仁俊의 『經籍佚文·十道志佚文』에도 보이지 않고 또한 기타 類書에 수록되어 있는 『十道志』에도 보이지 않는다(如唐代梁載言所撰唐代地理總志『十道志』, 在『夾註』中的引用就有58條之多, 且這58條均不見于今存王謨『漢唐地理書鈔·十道志』并王仁俊『經籍佚文·十道志佚文』, 亦不見于其他類書所載『十道志』)라고 설명하고 있다. 『文獻』, 2004年1月第1期, 111~112쪽.

『名賢詩話』라고도 불리는데 原書는 일찍이 失傳되었다. 『宋史·藝文志·文史類』에 『唐宋名賢詩話』二十卷이라고 수록되어 있으나 작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郭紹虞는 『宋詩話考』에서 이 詩話에 대해 「가장 이르게 송대 시화를 휘집한 서적이다(當爲宋大彙輯詩話之最早者)」⁸⁾라고 평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唐宋詩話』는 모두 5條, 「一. 阮昌齡, 「二. 劉遁, 「三. 僧無夢, 「四. 石曼卿, 「五. 詩讖」만이 전해지는데⁹⁾ 『夾註』에 인용된 『唐宋詩話』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는다. 『夾註』에 인용되고 있는 『唐宋詩話』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내용	출처
卷二	杜紫薇覽趙渭南卷早秋詩, 「殘星幾點雁橫塞, 長笛一聲人倚樓」吟味不已, 因目之爲「趙倚樓」贈緞詩曰: 「命代風騷將, 誰登李杜壇? 瀟陵鯨海動, 翰苑鶴天寒. 今日訪君還有意, 三條永雪借予看..」	「雪晴訪趙緞街西所居三韻」
卷三	淮南維陽有蜀岡者, 揚州之北岡也. 或曰: 勢連獨土. 岡之南有竹西亭, 修竹疎翠, 後卽禪智寺也.	「題揚州禪智寺」
卷四	京口甘露寺, 挾乎大江, 踞其崇俯, 大江踞崇岡, 天下絕致也.	「寄趙甘露寺北軒」
外集	大和二年, 崔郾侍郎東都放榜, 西都過堂, 杜紫薇第五人及第有詩云云.	「及第後寄長安故人」

결론적으로 『夾註』에 引用된 『唐宋詩話』 4則은 현재까지 어떤 집일본과 유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자료로서 『唐宋詩話』라는 서적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唐宋詩話』 집일본의 재구성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할 것은 『夾註名賢十抄詩』에서도 『唐宋詩話』를 인용하고 있는데 『夾註』에 인용된 『唐宋詩話』와 내용면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현존하는 집일본의 내용과도 다르다. 이런 까닭으로 『夾註名賢十抄詩』에

8) 郭紹虞, 『宋詩話考』, 臺北縣: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195쪽.

9) 현존하는 『唐宋詩話』 5則은 吳文治主編의 『宋詩話全編』,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10750-10752쪽 에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唐宋詩話』의 내용 역시 輯佚의 대상이 된다.¹⁰⁾

둘째, 『夾註』에 인용되고 있는 (唐)毛文錫의 『茶譜』 역시 새로운 집일 자료를 제공한다. 『茶譜』는 「차에 관한 고사를 기록하고 그 뒤에 당인의 시문을 부가한다(記茶故事, 其後附以唐人詩文)」¹¹⁾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서적이다. 原書는 이미 失傳되었고 근자에 陳祖槃, 朱自振의 『中國茶葉歷史資料選集』과 陳尙君의 『毛文錫『茶譜』輯考』가 관련 자료에서 각각 34則과 41則을 輯佚해 내었다.¹²⁾ 『夾註』에서 인용하고 있는 『茶譜』자료 가운데 1則의 자료, 즉 「茶譜: 湖州有顧渚山出紫笋」¹³⁾는 위에서 언급한 輯佚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통용되는 輯佚本에 새로운 집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夾註』에는 고려초에 편찬된 『十抄詩』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현존하는 기타 당대 시인의 시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佚詩, 예를 들어 雍陶의 「以馬鞭贈送鄆州裴巡官」(『夾註』 卷一 「洛中送冀處士東遊詩」에서 인용)과 李雄의 「鼎國詩」(『夾註』 卷三 「潤州二首」에서 인용) 등이 인용되고 있다. 이 佚詩들은 현존하는 雍陶과 李雄의 시집에는 보이지 않는 작품으로 각 시인의 시문 집일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¹⁴⁾

마지막으로 『夾註』 卷二 「送圍碁王逢」詩의 第一句 「玉子紋楸一路饒」의 협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鷄跖集』: 「日本國王子救唐人圍碁, 上勅待詔顧師言敵者, 出楸玉局冷溫碁子. 本國有乎譚池, 池中出玉子, 不由制度, 自然黑白, 冬溫夏冷」의 내용 역시 현존하는 『鷄跖集』의 집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¹⁵⁾

10) 『夾註名賢十抄詩』(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에서 『唐宋詩話』는 卷上 杜牧의 「送圍碁王逢」, 88쪽; 張處士詩 아래의 협주, 116쪽 등에 인용되어 있다.

11) 晁公武, 『郡齋讀書錄』, 卷十二, 子部·農家類, (日本)京都市, 中文出版社, 1985, 195쪽.

12) 『茶譜』의 輯佚에 대해서는 朱自振, 沈冬梅編著, 『中國古代茶書集成』, 上海文化出版社, 2010, 79-86쪽 을 참조할 것.

13) 『樊川文集夾註』, 卷三, 「題茶山」, 75上쪽.

14) 雍陶와 李雄 시의 佚詩에 관한 내용은 金程宇, 「『十抄詩』叢筭」, 張伯偉編, 『域外漢籍研究集刊』, 北京, 中華書局, 2005년, 95쪽; [高麗]釋子山 夾注, 查屏球 整理, 「十抄詩中唐人佚詩考」, 『夾註名賢十抄詩』, 上海古籍出版社, 2005.8, 270-271, 277쪽을 참조할 것.

15) 『鷄跖集』의 집일본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王河, 眞理 整理, 『宋代佚著輯考』, 南昌市, 江西人民出版社, 2003, 118-128쪽을 참고 할 것.

결론적으로 집일의 관점에서 볼 때 『夾註』에 引用된 서적 가운데 기존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十道志』, 『玄宗遺錄』 이외에도 『金海算法』, 『御前碁譜』, 『唐宋詩話』, 『茶譜』, 『鷄跖集』 그리고 (唐)雍陶과 (唐)李雄의 佚詩 등은 모두 후인의 집일 작업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2) 校勘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夾註』에 인용되고 있는 적지 않은 중국서적들은 집일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교감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이에 못지않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荊楚歲時記』, (南朝)梁宗懷 撰

『荊楚歲時記』는 중국에서 가장 빨리 楚지역의 歲時風俗과 風物故事를 기록한 서적이다. 原書는 일찍이 逸失되었고 현존하는 것은 1권으로 모두 明人 이 類書에서 輯佚한 것이다. 『夾註』에는 모두 3條의 『荊楚歲時記』가 인용되고 있다. 이 3條의 내용을 후인이 여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교감 작업을 거쳐 완성한 『荊楚歲時記校注』¹⁶⁾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荊楚歲時記校注』의 原文(明陳繼儒撰寶顏堂秘笈本)	『荊楚歲時記校注』의 校記	『夾註』에 인용된 『荊楚歲時記』의 내용
1	去冬節一百五日, 卽有疾風甚雨, 謂之寒食.	△去冬節一百五日. 藝文類聚四引, 「節」作「至」, 古今類傳十六, 類說六引, 「去冬節」作「冬至後」. 紺珠集五引, 昨「過冬至後一百五日」 △古今類傳十六, 類說六引, 紺珠集五引, 無「卽」字	去冬節一百五日, 卽有疾風甚雨, 謂之寒食.

16) 王毓榮著, 臺北, 文津出版社, 1988.

2	五月五日, 謂之浴蘭節. 四民並蹋百草之戲 . 採艾以爲人, 懸門戶上, 以禳毒氣.	△ 五朝小說本, 湖北先正本, 四部本, 說海本, 舊小說本, 日本鈔本, 王本, 何本, 子史精華二五, 類腋五, 陶珽本皆引, 作「 四民並蹋百草, 故有蹋百草之戲 」. △……事類賦四引, 作「五月五日, 四人並蹋百草, 故有蹋百草之戲」…….	五月五日, 四人並踏百草, 故有蹋百草之戲 .
3	三月三日, 四民並出江渚池沼間, 臨清流爲流杯曲水之飲 .	△……淵鑑類函十八引, 作「四人並出水渚」……. △五朝小說本, 湖北先正本, 四部本, 說海本, 舊小說本, 日本鈔本, 王本, 何本, 陶珽本, 淵鑑類函十八, 類腋三, 歲華紀麗一引, 皆作「 爲流盃曲水之飲 」.	三月三日, 四人並出水渚爲流盃曲水之飲 .

이상의 비교를 통해 『夾註』에 인용된 『荊楚歲時記』의 내용이 후대 여러 類書에 수록된 내용 및 寶顏堂秘笈本 등 단행본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夾註』에 인용된 『荊楚歲時記』의 내용은 현재에도 여전히 『荊楚歲時記』의 교감 작업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2) 『漢武內傳』, 撰者未詳

『漢武內傳』은 『漢武帝傳』 혹은 『漢武帝內傳』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한 무제의 출생부터 죽어서 땅에 묻히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原書는 逸失되었고, 『廣漢魏叢書』, 『粵雅堂叢書』, 『守山閣叢書』 등의 총서에 집일본이 수록되어 있다. 『夾註』에 인용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에 수록된 『守山閣叢書』本을 底本으로 한 교감본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夾註』 卷一의 「感懷詩」에 인용된 「雲氣勃鬱」¹⁷⁾이라는 내용은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本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夾註』 卷一 「張好好詩」의 협주에 인용된

17) 『樊川文集夾註』, 「感懷詩」, 卷一, 6下쪽. 『漢武帝內傳』: 「於是夫人與王母同乘而去. 臨發, 人馬龍虎威儀此二字『廣記』作導從音樂四字. 如初來時. 雲氣勃鬱『廣記』: 云彩郁勃, 盡爲香氣. 極望西南, 良久乃絕..」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本, 上海古籍出版社, 1999.12, 158쪽.

내용은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本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夾註』에 인용된 『漢武內傳』의 내용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本 『漢武帝內傳』의 내용
	王母乘紫雲車，駕九色斑麟 ¹⁸⁾	唯見王母乘紫雲之輦，駕九色斑龍 ¹⁹⁾

특히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本은 『守山閣叢書』本을 底本으로 교감 작업을 진행하면서 『夾註』에 인용된 『漢武內傳』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夾註』에 인용된 『漢武內傳』의 내용은 새로운 교감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羯鼓錄』, (唐)南卓 撰

『羯鼓錄』은 唐代의 樂器인 羯鼓에 대해 설명하는 서적이다. 崔令欽의 『教坊記』, 段安節의 『樂府雜象』과 『唐書·音樂志』와 더불어 樂과 당시 少數民族의 音樂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는 서적이다. 원서는 오래전에 逸失되었고 과거 『說郛』, 『廣秘笈』, 『續百川學海』 등의 類書와 叢書에 일부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다만 여러 판본의 訛謬가 매우 심하여 (淸)錢熙祚가 道光十七年 (1837年) 에 『太平御覽』, 『太平廣記』, 『類說』 등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탈락된 것을 보충하여 『守山閣叢書』에 수록하여 간행하였다. 이 총서본이 현재까지 비교적 좋은 판본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夾註』에 인용된 『羯鼓錄』의 내용	『守山閣叢書』本 『羯鼓錄』의 내용
	羯鼓，出外夷樂，以戎羯之鼓，故曰羯鼓。其音主大蔟一均，龜慈部，高昌部，疏勒部，天竺部，皆用之。次在都曇答臘鼓之下，鷄婁鼓之上，繇如添桶，下以牙牀承之。擊用兩枚，其聲焦殺鳴	羯鼓，出外夷，以戎羯之鼓，故曰羯鼓。其音主太蔟一均，龜慈部，高昌部，疏勒部，天竺部，皆用之。次在都曇答臘鼓之下，鷄婁鼓之上，繇如添桶，下以牙牀承之。擊用兩杖，其聲焦殺鳴

18) 『樊川文集夾註』, 「張好好詩」, 卷一, 17下等.

19) 『漢武帝內傳』,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本, 141쪽.

烈, 尤宜促急曲破, 作戰仗連碎之聲. 又宜高樓曉景, 明月清風, 碎空透遠, 極異衆樂.	烈, 尤宜促急曲破, 作戰仗連碎之聲. 又宜高樓曉景, 明月清風, 破空透遠, 特異衆樂.
又曰: 明皇尤愛羯鼓玉笛, 云八音之袖, 春雨始晴, 景色明麗. 帝曰: 對此景物, 豈可不與他判斷之乎? 命取羯鼓, 臨軒緩擊, 曲名曰: 春光好, 廻顧柳杏皆以徵折上. 笑曰: 此一事不喚我作, 天公可乎? ²⁰⁾	尤愛羯鼓玉笛, 常云八音之領袖, 諸樂不可爲比. 嘗遇二月初, 詰旦春巾櫛方畢時當宿雨初晴, 景色明麗. 小殿內庭, 柳杏將吐, 觀而嘆曰: 對此景物, 豈得不爲他判斷之乎? 左右相目, 將命備酒, 獨高力士遺取羯鼓, 上旋命之, 臨軒縱擊, 一曲曲名, 春光好, 神思自得, 及廻顧柳杏皆已發折上. 而笑謂嬪御曰: 此一事不喚我作, 天公可乎? ²¹⁾

이상의 비교를 통해 『夾註』에 인용된 『羯鼓錄』의 내용이 『守山閣叢書』本에 비해 내용적으로는 간략하지만 적지 않은 곳에서 글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守山閣叢書』本 『羯鼓錄』 역시 類書에서 집일한 것이고, 집일 작업시 『夾註』를 교감자료로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羯鼓錄』의 교감작업에 『夾註』에 인용된 『羯鼓錄』의 내용 역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譚賓錄』, (唐)胡璩 撰

『譚賓錄』十卷은 「唐朝 역사의 빠뜨린 부분(唐朝史之所遺)」²²⁾을 기록하고 있는 서적이다. 당대 朝野의 遺事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玄宗, 肅宗, 代宗, 德宗 등 四朝에 걸친 名臣의 軼事에 대한 기록이 특히 상세하여 비교적 큰 사료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舊唐書』와 『新唐書』 편찬 시 많은 부분을 이 서적에서 채록했다고 한다. 原書은 오래전에 실전되었고, 현재는 『類說』, 『說郛』 등의 유서에 약간의 逸文이 수록되어 있다. 『夾註』에 인용된 『譚賓錄』의 내용은 현존하는 明刊本 (宋)曾慥의 『類說·譚賓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清抄本에서만 발견된다.

20) 「華清宮三十韻」, 『樊川文集夾註』, 卷二, 36상쪽.

21) (唐)南卓撰, 『羯鼓錄』, 『叢書集成初編·守山閣叢書』, 北京, 中華書局, 1985, 3-5쪽.

22) 晁公武, 『郡齋讀書記』, 卷十二, 子部·小說類, 202쪽.

	『夾註』에 인용된 『譚賓錄』의 내용	清抄本 『譚賓錄』의 내용
	天寶中, 玄宗命宮女數百人爲梨園弟子, 皆居宜春北院. 上素曉音律, 時有馬仙期, 李龜年, 賀依智, 皆洞知律度. 安祿山自范陽入觀, 亦獻白玉簫管數百事, 皆陳於梨園, 自是音響殆不類人間. ²³⁾	天寶中, 元宗命宮女數百人爲梨園弟子, 皆居宜春北院. 上素曉音律, 時有馬仙期, 李龜年, 賀懷智, 皆洞知律度. 安祿山自范陽入觀, 亦獻白玉簫管數百事, 皆陳梨園, 自是音響殆不類人間. ²⁴⁾

비교의 결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玄宗」을 「元宗」으로 바꾸어 쓴 것은 清康熙帝의 이름인 玄燁의 玄을 避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夾註』에 인용된 『譚賓錄』의 내용이 더 적절하다. 依와 懷의 차이는 『夾註』에 다수의 속자가 쓰이는 경향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여진다.

(5) 『遜齋閒覽』, (宋) 陳正敏 撰

『遜齋閒覽』의 原書는 이미 전하지 않고 현재는 『說郛』(卷三十二)에 四十四條가 수록되어 있고, 天啓刊本 『類說』卷四十七에 『說郛』의 내용과 다른 九十五條가 수록되어 있다. 『夾註』에 인용된 『遜齋閒覽』의 내용은 『類說』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說郛』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거의 일치하지만 여전히 글자의 차이가 발견된다.

	『夾註』에 인용된 『遜齋閒覽』의 내용	『說郛』에 인용된 『遜齋閒覽』의 내용
	杜牧華清宮詩云云, 尤膾炙人口. 按 『唐紀』明皇常以十月幸驪山, 即還宮, 是未嘗六月在驪山也. 然荔枝盛暑方熟, 詞意雖美而失事實. ²⁵⁾	杜牧華清宮詩云云……尤膾炙人口. 據 『唐紀』明皇常以十月至驪山, 至春即還宮, 是未嘗六月在驪山也. 然荔枝盛暑方熟, 詞意雖是而失事實. ²⁶⁾

23) 「出宮人二首」, 『樊川文集夾註』, 卷二, 58下쪽.

24) 『譚賓錄』, 『續修四庫全書』1260冊, 「子部·小說家類」, 183쪽.

25) 「過華清宮絕句三首」, 『樊川文集夾註』卷二, 45下쪽.

26) (元) 陶宗儀撰, 『說郛』, 「詩談」, 卷三十二, 臺北, 新興書局, 1978.1, 552上쪽.

「幸驪山」과 「至驪山」 모두 뜻이 통하지만 前者가 황제의 행차라는 의미를 살린다는 점에서 좀 더 적합지 않나 생각한다.

(6) 『遁甲開山圖』, 撰者未詳

『遁甲開山圖』은 『開山圖』라고도 부르는데, 西漢시기의 緯書이다. 오래전에 散佚되었다. 『水經注』, 『後漢書』, 『文選』, 『藝文類聚』, 『初學記』, 『太平御覽』, 『太平寰宇記』, 『路史』 등의 책에 인용되어 그 내용이 후세에 전해졌다. 天下名山, 古先, 神聖, 帝皇의 발원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淸)黃奭의 『黃氏逸書考·遁甲開山圖』에 輯本이 수록되어 있다.

	『夾註』에 인용된 『遁甲開山圖』의 내용	『黃氏逸書考』本 『遁甲開山圖』의 내용
	河東有 豸 頭山, 多青檀可以爲良弓. ²⁷⁾	河東有 獨 頭山, 多青檀可以爲良弓. ²⁸⁾

비록 한 글자의 차이지만 해당 글자가 지명인 관계로 『夾註』에 인용된 『遁甲開山圖』의 내용은 교감자료로서 가치가 적지 않다. 게다가 『黃氏逸書考』에 수록된 『遁甲開山圖』 역시 類書인 『御覽』에서 집일한 것임을 고려할 때 『夾註』에 인용된 『遁甲開山圖』의 내용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7) 『明皇雜錄』, (唐)鄭處海撰

『明皇雜錄』은 주로 (唐)玄宗 시기의 雜事를 기록하고 있는 서적으로 開元과 天寶 시기 당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夾註』에 인용된 『明皇雜錄』의 내용과 『唐五代筆記小說大觀』本の 내용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27) 「郡齋獨酌」, 『樊川文集夾註』, 卷一, 14上쪽.

28) 『遁甲開山圖』, 『續修四庫全書』 1209冊, 「子部·雜家類」, 183쪽.

	『夾註』에 인용된 『明皇雜錄』의 내용	『唐五代筆記小說大觀』本 『明皇雜錄』의 내용
	上初入斜谷，屬霖雨涉旬，於棧道聞鈴，聲與山相應。上悼念貴妃，因採其聲爲『雨霖鈴』曲，以寄恨焉。 ²⁹⁾	明皇既幸蜀，西南行初入斜谷，屬霖雨涉旬，於棧道雨中聞鈴，音與山相應。上既悼念貴妃，採其聲爲『雨霖鈴』曲，以寄恨焉。 ³⁰⁾

즉, 『唐五代筆記小說大觀』本은 淸道光年間에 간행된 『守山閣叢書』本(『四庫全書』本을 底本으로 飜刻한 판本)을 底本으로 하고, 기타 서적 예를 들면 『唐宋叢書』, 『太平廣記』 등을 교감자료로 이용하여 편찬한 교감본이다. 중국에서 편찬된 집일본들이 모두 18세기 이후에 출현한 것임을 감안할 때 『夾註』에 인용된 『明皇雜錄』 내용이 원본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교감의 관점에서 『夾註』에 인용된 중국 서적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적, 예를 들어 『荊楚歲時記』, 『漢武內傳』, 『羯鼓錄』, 『譚賓錄』, 『遜齋閒覽』, 『遁甲開山圖』, 『明皇雜錄』 등이 후인의 교감작업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본 문헌가치

이상의 논의는 현재까지 『夾註』에 인용된 서적의 문헌가치를 중국학적 관점에서만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13세기 전후에는 편찬이 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두 차례나 간행된 『夾註』가 갖는 문헌가치가 오직 중국학 방면에만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夾註』의 편찬과 간행이 갖는 학술사적 의의를 한국학의 관점에서 찾아보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한중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夾註』 인용서적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9) 『華清宮』, 『樊川文集夾註』, 『外集』, 123下쪽.

30) 『明皇雜錄·明皇雜錄補遺』, 『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2000.3, 973쪽.

첫째, 한국학의 관점에서 볼 때 『夾註』에 인용된 중국 서적들은 당시 고려의 중국서적 장서환경을 일부만 증명한다. 즉 『夾註』에 인용된 중국 서적들 가운데 상당수는 『夾註』 편찬 당시 고려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다.³¹⁾ 이 점은 『夾註』의 협주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선행연구 성과를 분석해 보면 대다수 중국학자들은 협주자의 南宋人 說을 주장하는데 이 관점은 중국이외의 지역에 『夾註』에 인용된 희귀한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개연성에만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이에 비해 협주자의 한국인 설을 주장하는 몇몇 선행 연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학자 朴鋒奎는 고려문인 이규보의 저작 『開元天寶詠史詩』에서 『夾註』에 인용되고 있는 『玄宗遺錄』의 기록이 인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夾註』의 협주자가 고려인임을 주장한다.³²⁾ 일본학자 芳村弘道도 『夾註』의 협주자가 註를 달면서 고려인이 편찬한 『十抄詩』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현존하는 시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唐代詩人の佚詩(예를 들어 「以馬鞭贈送鄆州裴巡官」과 「鼎國詩」)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협주자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임을 주장한다.³³⁾ 金鎬도 고려인에 의해 편찬된 것이 확실한 『夾註名賢十抄詩』에 인용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실전된 희귀한 중국서적이 『夾註』에도 인용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협주자의 고려인 설을 주장한

31) 당연히 『夾註』에 인용된 중국서적들이 모두 단행본의 형태로 고려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夾註』에 인용되는 중국서적들의 내용이 단행본이 아닌 다른 서적의 註釋 혹은 類書에서 온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적지 않은 인용서적이 해당 서적 자체에서 인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예로는 (唐)孟榮의 『本事詩』를 들 수 있다. 『樊川文集夾註·外集』, 「送人」의 第3句 「明鑑半邊釵一股」의 夾註에서 인용하고 있는 『本事詩』의 내용(114쪽)은 현존하는 단행본(淸·何文煥, 丁福保編, 『歷代詩話統編·本事詩』, 北京圖書館出版社, 13쪽)의 내용과는 일치하지만 『類說』과 같은 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32) 朴鋒奎, 『朝鮮刻本『樊川文集夾註本』考』,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4.6, 24-28쪽

33) 이 문제에 대해서는 芳村弘道, 「朝鮮本『夾註名賢十抄詩』의 基礎的考察」, 『學林』 2004.第39號, 44-99쪽을 참고할 것. 이 논문은 후에 『漢字漢文研究』창간호(200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175-248면에 轉載되었고 같은 호에 沈慶昊가 번역한 「朝鮮本『夾註名賢十抄詩』의 基礎的考察」이 249-287면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다.³⁴⁾ 객관적으로 협주자의 한국인(고려인) 설은 대다수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협주자의 중국인 설보다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夾註』 협주자의 국적이 고려인이라는 점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夾註』의 편찬 당시 중국에서도 남송이후로 실전된 귀중한 서적들이 고려에는 존재했고, 협주자가 당시에 소장되어 있던 중국 서적을 이용해서 『夾註』에 협주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은 고려시대 한중 양국간의 서적 교류 양상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를 시사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고려시대에 편찬된 장서목록의 부족으로 고려시대에 어느 정도의 중국 서적이 유입되고 소장되었는지는 자세히 고증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자료를 통해 대강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박문열은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등 史書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중국으로 부터의 서적수입 양상을 검토한 바 있다.³⁵⁾ 중국인 鞏本棟도 「宋人撰述流傳麗, 鮮兩朝考」³⁶⁾에서 『高麗史』, 『宋史』, 『海東繹史』 및 개인의 저술기록을 통해 송인의 저술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한국에 수입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 두 편의 선행 연구가 모두 고려 혹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장서목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로 史書나 개인 문집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으로 고려시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서적에 대한 연구는 관련 사료가 부족하다는 선천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

그러나 『夾註』의 협주자가 고려인이고 인용된 서적들이 당시 고려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고려의 중국서적 소장상황은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사료의 한계를 일정부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夾註』에 인용되고 있는 『十道志』, 『玄宗遺錄』, 『晉陽秋』, 『五經通義』, 『建康

34) 金鎬, 「朝鮮刊本『樊川文集夾註』 夾註者 國籍에 관한 一考 -고려시대 중국서적 장서환경의 관점에서-」, 『中國語文學志』43, 2013.6

35) 朴文烈, 「高麗時代 書籍輸入에 관한 研究」, 『인문과학논집』 11,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5-163쪽.

36) 鞏本棟, 「宋人撰述流傳麗, 鮮兩朝考」, 『域外漢籍研究集刊』 제1집, 北京, 中華書局, 2005, 323-386쪽.

實錄』, 『吳越春秋』, 『東觀漢記』, 『唐宋詩話』, 『青箱雜記』, 『荊楚歲時記』, 『樂府雜錄』, 『茶譜』, 『漢晉春秋』, 『遜齋閒覽』, 『羯鼓錄』 등 남송이후 중국에서도 原書가 전해지지 않는 희귀한 서적이 당시 고려에 소장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고려의 중국서적 수입 양상을 기존의 연구보다 더욱 심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³⁷⁾

둘째, 『夾註』에 인용된 중국 고서들은 한중 서적교류와 관련된 한국 史書의 기록을 검증하는데 일정한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增補文獻備考·藝文考』의 내용이다. 고려 선종(宣宗) 8년(1091)에 중국황제는 고려의 使臣에게 중국에는 없는 서적이 고려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귀국 후에 128종의 서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增補文獻備考·藝文考』에서는 이일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선종(宣宗) 8년(1091)에 호부 상서(戶部尙書) 이자의(資義)·예부시랑(禮部侍郎) 위계정(魏繼廷) 등이 송(宋)나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송제(宋帝)가 우리나라 서적(書籍)에 좋은 것이 많다 함을 듣고, 관반(館伴)에게 명하여 구하는 책 목록을 적어 주며 말하기를, ‘비록 권질(卷帙)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또한 모름지기 전사(傳寫)하여 부쳐 보내라.’ 하였는데, 모두 1백28종입니다.” 하였다.……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이제 송제(宋帝)가 요구하는 1백28종의 서목(書目)은 본국(本國)에 있는 몇몇 종과 맞추어 보면 사기(史記)에는 명문(明文)이 없으니, 반드시 멀리서 전문(傳聞)하였거나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中國)의 일서(逸書)로 생각된다. 이제 편목(編目)을 열기하여 후의 참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송나라 황제가 고려에 좋은 서적이 있음을 듣고 고

37) 물론 『樊川文集夾註』에 인용된 자료가운데 일부는 類書에서 직접 採錄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宋)曾慥 『類說』에 수록된 『樂府雜錄』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類說』이라는 서적이 당시 고려에 소장되어 있어서 협주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외에도 『樊川文集夾註』에는 『藝文類聚』, 『太平御覽』, 『太平廣記』의 내용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들 대형유서가 고려에 수입되었다는 역사서의 기록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러사신에게 구하는 책 목록을 주어 얻고자 하는 서적을 보내기를 명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고려측은 128종의 서적이 실린 목록과 당시의 史書를 비교하면 서 고려에 없는 서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당시 고려에 송나라가 원하는 서적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윗글에서 말하는 사기는 당연히 국가의 기록이므로 일반 민간의 藏書기록까지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고려 선종8년 중국황제가 고려의 사신에게 요구한 서적 가운데 일부, 즉 고려 측에서 사기에서 명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서적 가운데 『東觀漢記』, 孫盛의 『晉陽秋』, 『三輔黃圖』, 『三輔決錄』 등이 『夾註』에서 인용되고 있다.³⁸⁾ 둘째,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夾註』에 인용된 적지 않은 희귀한 중국 고서, 예를 들면 『晉陽秋』, 『五經通義』, 『十道志』, 『建康實錄』, 『吳越春秋』, 『東觀漢記』, 『唐宋詩話』, 『青箱雜記』, 『荊楚歲時記』, 『樂府雜錄』, 『茶譜』, 『漢晉春秋』 등이 고려 승려 「月岩山人神印宗老僧子山」이 夾註한 것이 확실한³⁹⁾ 『夾註名賢十抄詩』에도 공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⁴⁰⁾ 이 두 가지 사실로 볼 때 고려의 중국고서 소장환경, 특히 民間의 소장환경은 『增補文獻備考·藝文考』에서 언급한 국가의 소장환경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夾註』와 『夾註名賢十抄詩』가 대략 13-14세기에 편찬되었다는 점과 선종8년(1091)이 11세기 후반임을 고려할 때 비록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38) 인용문과 128종의 서적 종류에 대해서는 『(국역)增補文獻備考·藝文考』, 卷二百四十二, 藝文考一, 역대서적, 20-23쪽을 참조 할 것.

39) [高麗]釋子山 夾註, 查屏球 整理, 『夾註名賢十抄詩』: 「이 시들은 베껴 쓴 사람은 우리나라의 현인이고, 주를 단 사람 역시 우리나라의 승려이다(是詩抄者也, 東賢也. 注者亦東僧也).」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8, 210쪽.

40)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夾註名賢十抄詩』의 협주자가 비록 승려이지만 13-14세기 고려사회가 문인학자들이 武臣亂의 禍를 피해 절간으로 숨어 승려가 되어 이들을 찾아 글공부를 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승려가 아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林煥澤, 「夾註名賢十抄詩解題」, 『夾註名賢十抄詩』, 『韓國學資料叢書』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5-16쪽을 참조할 것.

당시 고려 민간의 중국고서 장서환경은 『樊川文集』이나 『十抄詩』의 夾註작업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추론은 12-13세기에 등장하는 중국인의 저술, 예를 들면 (宋)張端義 『貴耳集』, (宋)王應麟 『玉海』 등에서 고려에 중국고서가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는 기록이 발견되는 점⁴¹⁾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12세기에 직접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근자에 사신이 고려에 갔을 때 현종이 임친각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서가 수만 권에 이르고, 또 청연각이 있어 경·사·자·집 사부의 책으로 채웠다(比者, 使人到彼, 詢知臨川閣藏書, 至數萬卷. 又有清燕閣, 亦實以經史子集四部之書).」⁴²⁾라고 고려의 장서 상황을 기록한 徐兢의 『高麗圖經』의 기록에서도 방증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夾註』에 인용된 적지 않은 중국서적들을 통해 13-14세기 고려에 상당한 양의 중국 고서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은 특히 기존의 史書 중심의 한중 서적교류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4. 나오는 말

본문은 朝鮮刊本 『夾註』의 인용서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41) 『貴耳集』: 「宣和間, 有奉使高麗者, 其國異書甚富, 自先秦以後晉唐隋梁之書皆有之, 不知幾千家幾千集, 蓋不經兵火. 今中秘所藏, 未必如此旁搜而博蓄也」, 臺北, 木鐸出版社, 1982년, 8면; 『玉海』: 「元祐七年五月十九日秘書省言: 高麗獻書多異本, 館內所無, 詔校正二本, 副寫藏太清樓天章閣」, 卷五十二, 「景德太清樓四部書目·嘉祐補寫樓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년, 권52, 35上면; 김호, 「韓國 「國寶」中的五種韓國刻本中國古籍: 兼論韓國所藏中國古籍的特色與文獻價值」, 潘美月·鄭吉雄編, 『東亞文獻資源論集』, 臺北: 學生書局, 2007년12월, 422-424쪽 등을 참조할 것.

42) 徐兢撰, 조동원의 옮김, 『高麗圖經』,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2005, 476쪽.

첫째, 輯佚의 관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문헌들 예를 들어 『十道志』, 『玄宗遺錄』 등을 제외하고 『夾註』에서 인용된 『金海算法』, 『御前棊譜』, 『唐宋詩話』, (唐)毛文錫 『茶譜』, 唐佚詩(雍陶의 「以馬鞭贈送鄆州裴巡官」과 李雄의 「鼎國詩」) 및 『鷄跖集』 등은 해당 서적의 집일 작업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校勘의 관점에서 『夾註』에 인용된 『荊楚歲時記』, 『漢武內傳』, 『羯鼓錄』, 『譚賓錄』, 『遜齋閒覽』, 『遁甲開山圖』, 『明皇雜錄』 등의 서적은 해당 서적의 교감 작업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韓中 서적교류사의 관점에서 볼 때 『夾註』의 협주자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통해 『夾註』에 인용된 적지 않은 중국 서적들이 편찬 당시 고려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韓中 양국간의 서적 교류 양상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국역)增補文獻備考』,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 徐兢撰, 조동원의 옮김, 『高麗圖經』,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2005
- 杜牧著, 注者未詳, 『續修四庫全書·樊川文集夾註』第131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月岩山人神印宗老僧子山註, 『夾註名賢十抄詩』, 『韓國學資料叢書』39,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高麗]釋子山 夾注, 查屏球 整理, 『夾註名賢十抄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南朝)梁宗懷 撰, 王毓榮校注, 『荊楚歲時記校注』, 臺北, 文津出版社, 1988
- 撰者未詳, 『漢武帝內傳』, 上海古籍出版社編,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唐)南卓撰, 『羯鼓錄』, 『叢書集成初編·守山閣叢書』, 北京, 中華書局, 1985
- (唐)胡璩 撰 『譚賓錄』, 『續修四庫全書』1260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撰者未詳, 『遁甲開山圖』, 『續修四庫全書』1209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唐)鄭處誨撰, 『明皇雜錄』, 上海古籍出版社編, 『唐五代筆記小說大觀』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宋)曾慥撰, 嚴一萍校訂, 『類說』, 王叔岷編, 『類書薈編』本, 臺北, 藝文印書館,
- (宋)晁公武, 『郡齋讀書錄』, (日本)京都市, 中文出版社, 1985
- (元)陶宗儀撰, 『說郛』, 臺北, 新興書局, 1978
- 郭紹虞, 『宋詩話考』, 臺北縣,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 吳文治主編, 『宋詩話全編』,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 朱自振, 沈冬梅編著, 『中國古代茶書集成』,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ture Value of Books Referred to in
“Beoncheonmunjibheobju” Published in Choseon Ages

Ho, Kim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logical discussions on the books referred to in “Beoncheonmunjibheobju” as the object of study in two aspects considering the insufficiencies in the previous studies. First, it investigates the literature value of the other books referred to in “Beoncheonmun jiphyeobju”, except the books such as “Sibdoji” and “Hyeonjongdorok” alluded to in the previous studies in the view of Jibil (republishing of lost books) and gyogam (revision of books published). Through this way, the literature value of old Chinese books referred to in “Beoncheonmunjibheobju” can be more precisely described. Second, in the view of books exchange history between Korea and China and of the history of science, it examines the meaning of the fact that the Chinese books referred to in “Beoncheonmunjibheobju” were possessed by the Korea Dynasty when “Beoncheonmunjiphyeobju” was published.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value of “Beoncheonmunjibheobju” published in Choseon ages more concretely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Key words : Choseon Edition “Beoncheonmunjibheobju”, books referred to in “Beoncheonmunjibheobju”, commentator, history of books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old Chinese books possessed by the Korea Dynasty

투 고 일 : 2013. 05. 20. / 심 사 일 : 2013. 06. 01. ~ 2013. 06. 17. / 게재확정일 : 2013. 06. 23.